

격려사

자 승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2012부산불교합창제』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년도까지 전국의 대표적인 찬불합창단을 초청하여 서로의 기량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던 “전국불교합창제”가 올해부터는 “부산불교합창제”라는 이름으로 더욱 새롭고 발전된 모습으로 대중에게 선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전국불교합창제” 봉행의 경험으로 “부산불교합창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찬불합창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합창”에는 독선과 아집을 타파하는 힘과 화합과 원융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웃을 돌아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에는 지극히 인색하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중시하는 심각한 개인주의의 병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병폐를 치유하고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합창”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부산이 불국토로 불리며 불심의 고장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화합과 원융의 해조음으로 이 사회를 밝혀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의 숨은 공로가 지대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1,500여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의 찬불가 보급과 대중포교의 원력은 그 어느 신행단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부산불교의 음악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찬불음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윤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크게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수행과 정진으로 찬불음성공양을 통한 불법홍포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12부산전국불교합창제』의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원로대덕스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불자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삼보전에 합장 축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